



Hello! I am Sister Karen Cunningham. Growing up in Etna, Pennsylvania surrounded by the gifts of nature, I came to appreciate the beauty of creation early in life. Many hours were spent enjoying the natural surroundings with siblings and neighborhood friends. Sometimes I would take the family dog for a walk in the woods. It was so serene and beautiful. Another treasured memory is my First Holy Communion day, which my second grade teacher called a “most important” day.



There have been many grace-filled occurrences in my life. One of my favorites was teaching religious education to children who attended public school. It was inspiring to hear young students say they were glad to be learning so much about their religion. A very significant experience has been supporting others as they prepare for the journey to their Eternal Home.



On September 26, 1999, Sister Laura Coughlin and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 am thankful for the many opportunities in community to deepen my faith, to form relationships with other sisters, to learn new things, and to use my gifts.

Currently I minister with the Little Sisters of the Poor. At their home for the elderly poor, I assist with fundraising in the development office.



Several years ago when the General Council invited sisters in each province to become prayer partners I gladly said yes and was connected with Sister Kang, Sun He. We pray for each other and communicate through emails and greeting cards. It was especially joyful to meet in person in 2016.



This relationship is one of the blessings of our international congregation.



안녕하세요! 카렌 커닝햄 수녀(Sister Karen Cunningham)입니다. 저는 자연의 선물로 둘러싸인 펜실베이니아의 에트나(Etna, Pennsylvania)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사 드리게 되었지요. 형제들이나 이웃 친구들과 함께 자연의 풍경을 즐기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때때로 우리 집 개를 데리고 숲에서 산책을 하곤 했어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지요.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은 첫 영성체를 한 날이에요. 2학년때 선생님은 그 날을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셨지요.



저의 삶에는 많은 은총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종교 교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종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원의 집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체험은 다른 체험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1999년 9월 26일, 저는 로라 콜린(Sister Laura Coughlin)과 함께 입회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의 신앙이 깊어지고 다른 수녀님들과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저에게 주어진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현재 저는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수녀님들과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집에서 경제 개발 사무실에 근무하며 기금 마련을 돕고 있어요.

몇 년 전, 총 이사회에서 각 관구의 수녀님들에게 기도 파트너를 맺도록 초대했을 때 기쁘게 응답하여 강순희



수녀님과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수녀님과 저는 서로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메일과 카드를 주고 받고 있어요.

2016년에 직접 만났을 때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관계는 국제 수도회가 지닌 큰 축복 중의 하나이지요.